

‘광주다움 통합돌봄’ 최고 권위 ‘국제도시혁신상’

광주시, 광저우 시상식서 최고상 세계 198개 도시 우수정책 경쟁 돌봄체계 한계 극복 대안 ‘주목’ 고령화 위기속 대응책 관심 집중

민선8기 광주시 핵심 시책이자 최고 히트상품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세계 최고 권위의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7일 오후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본선에 오른 15개 도시 중 5개 도시에만 주는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중국 광저우시(세계대도시연합 공동회장도시)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전 세계 24만여개 도시가, 세계대도시연합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138개 세계 주요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국제기구다.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도시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상호 공유해 세계 도시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설립돼 국제적으로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이 지난 6일 중국 광저우시 백조호텔에서 쑨쯔양 광저우시장과 양도시간 협력강화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고 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광저우 혁신상은 지난해 제6회 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로 연기되면서 지난 7~8월 공모가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54개국 198개 도시에서 330개의 우수정책이 도전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해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저우 혁신상 심사를 맡은 11개국 11명의 심사위원들은 광주시가 현재의 돌봄 체계가 갖는 한계(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정학이 협치를 이뤄 대안적 돌봄시스템을 갖춰 나간 혁신과정과 성과, 사례의 전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돌봄망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 돌봄제도의 ‘선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보편적 돌봄의 시대’를 개척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드러난 ‘신청주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일 신청창구인 ‘돌봄콜’을 신설했으며, 복지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민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의무 방문’해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했다. 세계의 도시들은 시민의 편의성을 높인 ‘돌봄콜’과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제도’

에 큰 관심을 보였다.

광주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돌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돌봄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데 의의가 있다. ‘돌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무이고, 도시 공동체가 협업한다면 사회적 돌봄은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이슈화했다’ 점이 세계 도시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저우 혁신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다. 전 세계 274개의 훌륭한 혁신정책 가운데 최고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다”며 “이 상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준 상이며, 광주의 성공에 준 상이 아니고, 광주의 도전에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시민들의 잃어버린 공동체와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복원해 돌봄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었고, 세계의 표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겨울축제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 연다

市, 연말까지 통합 브랜딩 축제 사직동·양림동·ACC 등 일대서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밤 광주 도심 곳곳이 빛으로 물든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직동, 양림동,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동명동 일원에서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를 연말까지 개최한다.

‘크리스마스@광주빛축제’는 광주시의 축제 브랜딩 정책에 따라 겨울철의 각종 축제를 연계 통합해 열린다. 사직동에서 양림동, 아시아음식문화지구(옛 시청 주변)를 거쳐 5·18민주광장, 동명동까지 화려한 빛 조형물이 조성된다.

특히 크리스마스합창제, 버스킹공연, 벼룩시장(플리마켓) 등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크리스마스와 연말시즌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먼저 지난달말부터 공식운영에 들어간 유네스코 창의벨트 3권역의 사직공원 ‘빛의 숲’은 수많은 소망들이 하늘의 별이 돼 사직공원에 은하수로 쏟아지는 콘셉트로 구성돼 있다.

양림동 일원에서는 지난 2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양림&크리스마스 축제가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또 양림의 문 입구 소공원에는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포용의 도시 광주’를 표현하는 한지조형미디어아트 작품을 23~25일 선보

인다.

옛 시청 주변에 자리한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서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겨울축제’가 13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열린다.

5·18민주광장에서는 지난 3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화식을 시작으로 빛고을성탄문화축제가 열린다. 특히 23~25일 벼룩시장(플리마켓)을 열어 가족과 연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

동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 거리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이다. 여행자의 집(ZIP)까지 이어지는 카페 거리에는 연말연시 문구와 이미지 등 의 화려한 조명이 엠제트(MZ) 세대의 눈과 발을 이끈다.

최권범 기자

‘화순광업소 개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조기폐광 지역 대체산업 육성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7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화순군·태백시·삼척시 등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은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복합관광단지(골프장, 정

원, 복합리조트), 농공단지(의료, 식품), 스마트팜단지 구축에 총 5643억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예타 조사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화순 탄광은 우리나라 최초의 탄광으로 1905년부터 118년 동안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화순 강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폐광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부각시켜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법허가) 제5항 및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의거 발전사업내용의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 명 칭 : 에코솔라(주) 태양광 발전
- 위 치 :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573-4 인접공유수면 일부
- 면 적 : 약 380,000㎡
- 주요내용
가) 설비용량 : 약 40MW
나) 사업개시일 : 2026년 3월 1일
다) 사업운영기간 : 2026년 3월 1일 ~ 2045년 2월 28일
라) 발전사업 허가신청인 에코솔라(주)
- 주민의견제출
가) 2023년 12월8일~2023년 12월17일까지 10일간
나) 의견수렴 echosolar4u@gmail.com
다) 에코솔라(주)
라)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길 10 2층(조례동)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공고문 제 2023-6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신문)

환경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기관장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과제 (5건)

<표 1> 추진 연구제안서 목록

구분	No.	과제명	연구비(천원)
조사연구	1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연구	25,000
	2	미생물막과 전극의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공극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연구과제)	30,000
	3	안정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시 기반 물재이용 기술 최적화(연구과제)	30,000
	4	고도 폐수 처리 및 물 에너지 재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전해-암석지연식막중류(PRMD) 융합 공정 설계 및 타당성 평가	30,000
산학연	5	태양광-생물전기화학반응 시스템을 이용한 Zero-에너지 배터리 및 이차전지 공정 폐수 내 유기금속 처리 및 회수법 개발	40,000 (센터: 25,000 /기업: 15,000)

※ 연구과제 및 연구비는 행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기간 : 2024. 4. ~ 2024. 11. (약 8개월)

※ 연구기간은 연구책임자 선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23. 12. 4. (월) ~ 12. 18. (월), 18:00 까지

4. 제출서류

○ 연구개발사업신청서 1부 (파일명: 연구책임자명.hwp)

※ 관련서류는 센터홈페이지(www.gjgec.or.kr)에서 다운로드

5.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참조(자료실>센터규정>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규정, 2020년 3월 5일 기준)

나.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간(2021~2023년) 2개 이상 18개 전국센터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구책임자(연구원) 신청 불가

6. 신청서 작성방법

가.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연구비 계산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산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다. 산학연협력연구에 참여기업(제안서 참고)과 협의 후 제출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 이메일(gjgec@hanmail.net; 제출기한 엄수) 또는 방문 접수

나. 접 수 처 : (우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관 301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다. 문 의 처 : (062)530-3391 연구지원담당자

2023년 12월 4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